

한국학의 전통과 혁신

조동일

머리말

한국학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혁신을 거듭해왔다. 21 세기가 시작되고 10 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한국학의 전통을 되돌아보고, 혁신의 과정과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한국의 한국학이 세계의 한국학으로 나아가는 것을 혁신의 목표로 삼고 실현 방안을 찾는 데 이르고자 한다.

전통과 혁신은 배타적이지 않고 상보적이다. 혁신은 전통 거부이지만 전통에 의거해야 한다. 여러 가닥의 전통 가운데 권위를 자랑하다가 빛바랜 전통을 거부하고 훼손되지 않아 신선한 전통에서 대안을 찾아 잠재된 가치를 실현해야 혁신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한국학이 세계의 한국학으로 나아가려면 전통에 의거한 혁신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어야 한다.

세계의 한국학이란 (가) 세계에 개방되고, (나) 세계와 교류하고, (다)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학문이다. 한국학을 하는 나라나 학자가 늘어나 (가)로 나아가고 있지만, 참여의 확대와 내용의 다양화가 계속 요망된다. (나)는 한국학과 다른 많은 나라의 자국학 또는 자국학 이외의 여러 학문의 비교연구에서 실현되고, 국내외의 협동이 바람직하다. (다)에서는 한국학이 인류의 고민이나 세계사의 위기 진단과 해결에 기여해야 하므로, 최상의 전통을 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학문을 혁신하는 수준의 이론을 창조해야 한다.

이 셋 가운데 (가)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 새삼스럽게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나)를 거쳐서 (다)로 나아가는 작업은 성과가 미미하고 인식이 부족하기까지 하므로 힘써 논의해야 한다. 이미 한 시도가 <<우리 학문의 길>>(지식산업사, 1993); <<인문학문의 사명>>(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전 10 권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2009); <<학문론>>(지식산업사, 2012) 등에 있는데 장황하면서 미흡하다. 긴요한 내용을 간추려 더욱 선명해진 문제의식에 따라 재론하기로 한다.

국학의 유래와 변천

오늘날 하고 있는 한국학은 국학에서 유래했다. ‘國學’은 ‘국’이 ‘국가’이고 ‘학’은 ‘학교’여서 원래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을 뜻했다. 나라 학문이라는 뜻의 국학은 ‘國史’에서 비롯했다. 일찍이 545 년에 신라에서 “국사는 군신의 선악을 기록해 포폄을 만대에 보이는 것이니, 편찬해 두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겠는가?”(國史者 記君臣之善惡 示褒貶於萬代 不有修撰 後代何觀, <<삼국사기>> 진흥왕 6 년)라고 했다. 국사를 서술해 후대에 전하는 학문을 해야 문명국일 수 있다는 말이다.

나라를 지칭할 때에는 ‘東國’이라고 하는 것이 관례이고, 중국을 ‘西國’이라고 한 용례도 발견된다. ‘東’만 가지고 나라 이름을 삼기도 하고, ‘海東’이라는 말도 썼다. <<東國通鑑>>,

<<東國輿地勝覽>>, <<東文選>>, <<東人詩話>>, <<海東繹史>>, <<海東歌謠>> 등이 그런 예이다. 국·동국·해동에 관한 연구가 국학이다. 국학은 오랜 내력을 지니고 많은 업적이 남아 있다. 특히 15 세기에는 국가사업으로, 18 세기에는 민간학자들이 여러 분야의 뛰어난 저작을 남겼다. 그 유산을 물려받아 활용하기 위해 계속 힘써야 한다.

대한제국 시대에는 ‘本國學’이라는 말을 쓰면서 ‘本國學’과 ‘外國學’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시아문명의 유산을 외국학의 영역으로 삼는 획기적인 전환을 거쳤다.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가 없어져 일컫지 못하게 된 ‘국’을 지역 명 ‘조선’으로 바꾸어 ‘조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조선학을 국학이라고 한 것은 광복 후의 명명인데, 소급해서 쓸 수 있다.

조선학이라고 하던 시기의 국학은 민족문화운동과 함께 성장하고, 동아시아문명의 보편주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민족주의 정립의 정신적 근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근대가 요구하는 학문을 스스로 이룩하기 위해 오랜 내력을 가진 중세의 학식을 새롭게 활용하려고 했다. 최남선, 신채호, 문일평, 안확, 안재홍 등의 선각자들이 식민지 통치하의 불리한 여건을 무릅쓰고 일제히 분발했다.

최남선은 국내에서, 신채호는 해외 망명지에서 순응과 항거의 상이한 자세로 학문을 했으나 기본 발상이 상통했다. 최남선은 민족고유의 정신이 단군 시대에는 크게 떨쳐 ‘不威’(불)이라고 일컫은 광명을 존송하는 거대한 문명을 이룬 유산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다. 신채호는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여 이룬 시기의 진취적인 기상을 잃은 것이 민족사의 최대 불행이었다고 하고, 郎家思想이라고 일컫은 고유의 주체 의식을 새롭게 계승해 민족해방 투쟁의 정신으로 삼자고 역설했다.

문일평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선학의 의의>라는 총론을 썼다. 조선학은 “광의로는 종교·철학·예술·민속·전설할 것 없이 조선연구의 학적 대상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포함한 것이나, 협의로는 조선어·조선사를 비롯하여 순조선문학 같은 것을 주로 지칭하여야 하겠다”고 했다. “엄정한 입장에서 조선학이란 광의보다도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하고, “특히 조선학이 儒佛學과 대립하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협의”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시아문명과 구별되는 민족문화 연구가 국학이라고 했다.

최남선·신채호·문일평의 국학을 국학 1 이라고 하자. 이와는 구별되는 국학 2 도 있어 다른 길을 열었다. 안확은 외래문화가 들어와 민족문화를 손상했다고 개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배타적인 태도로 고유문화를 옹호하는 풍조에 맞서서, 동아시아문명이 민족문화 발전에 활용되어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는 견해 정립을 선도했다.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여 민족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족문화를 풍부하게 한 것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조선문학사>>를 썼다. 과거가 잘못 되었다고 나무라기만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自己長處’ 탐구에 힘써야 한다는 것도 긴요한 과제로 삼았다. <<조선문명사>>에서는 망국의 원천이라고 규탄되던 당쟁이 정책 대결로서 긍정적인 의의가 있었음을 밝혀 논했다.

안재홍은 <조선학의 문제>에서 국학 2 의 목표를 분명하게 했다. “우리 자신의 문화 및 그 사상에서 조선적이면서 세계적이요, 세계적이면서 조선 및 조선인적인 第三新生的인”, “현대에서 세련된 새로운 자아를 창건”하자고 했다. “신생적인 사회를” “장래에 창건하자는 숭고하고 엄숙한 현실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학문을 하자고 했다. 쉽게 풀이해보자. 조선적이면서 세계적이고 세계적이면서 조선적인 학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폐단을 시정하고 그 둘을 아우르는 제 3의 노선을 정립해 정신적 각성과 사회 개조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학으로의 전환과 노선 분화

식민지 통치자 일본은 한국인의 국학이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민족해방운동을 고취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 조선학 연구의 주도권을 자기네가 장악해 식민지 통치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했다. 민족감정에 들떠 허황된 소리를 하지 말고 사실을 그 자체로 탐구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의심스럽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는 배격하고 최소한의 것들만 남기고, 조선이 낙후하고 빈약한 양상을 드러내 고찰하는 것을 실제 작업으로 삼았다. 조선은 정체성과 타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왔으니 독립은 불가하고 일본의 지배를 계속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문화제국주의 지역학의 일반적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일본인 학자들은 식민지 지역학을 위해 힘을 모으려고 1930년에 靑丘學會를 조직하고 <<靑丘學叢>>을 냈다.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진이 연구를 주도해 상당한 분량과 그 나름대로의 치밀성을 갖춘 업적을 내놓았다. 사료 비판에서 모범을 보인다고 하던 역사학은 식민지 통치 대변자의 노릇을 하면서 대단한 위세를 자랑했지만 부당한 선입견 조성 이상의 구실은 하지는 못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자료 고찰에서 진전을 보인 역작이 더러 있어 자극을 주었다. 그 때까지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던 영역에 관해 정치적 성향이 적은 논의를 펼 때에는 성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小倉進平의 향가 연구, 秋葉 隆의 무속 연구 같은 것이 기억할 만한 본보기이다.

조선인 학자들은 1934년에 震檀學會를 창설해 별도의 활동을 전개했다. ‘청구’와 함께 ‘진단’ 또한 조선의 별칭이다. 국명을 내세우지 않고 별칭을 사용한 점이 같았다. 취지문에 해당하는 글을 <<震檀學報>> 창간호에 실고, “조선문화를 개척·전진시키는 의무와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한 것이 일본인의 연구와 선명하게 구분되었으나,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일본 유학을 하고 온 이병도, 김상기, 이상백, 이선근 등이 주도하고 경성제국대학 졸업생들도 참가해 양쪽에서 배운 실증주의를 연구의 지침으로 삼고자 했다.

진단학회의 주동자들은 역사학자이고, 국사를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한 것을 모범이 되는 업적으로 삼았다. 이어서 국문학과 국어학도 그 나름대로의 영역과 방법을 갖추고 등장했다. 연구 성과에서는 국문학과 국어학이 앞서서 조운제의 <<조선시가사강>>, 양주동의 <<고가연구>>, 최현배의 <<우리말본>> 같은 노작이 이루어졌다. 국사의 주류 밖 경제사라고 따로 분류된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도 비중이 큰 업적이었다. 송석하는 민속학, 고유섭은 미술사를 개척하면서 소중한 연구를 했다.

앞에서 고찰한 국학과, 실증주의 방법을 사용하고 학문 분야가 구분된 두 가지 기본 특징 때문에 구별되는 새로운 학문을 한국학이라고 지칭한다. 국학은 독자적으로 이룩해온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학문의 최종 성과이고, 한국학은 외래의 영향을 받고 출현한 근대 학문이다. 국학은 한국인만의 학문이고, 한국학은 한국인이 여러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문임을 명칭 구분에서 분명하게 한다.

국학을 하다가 한국학으로 넘어온 것이 발전이라고 말하고 말 수 없다. 국학에 소중한 전통이 있어 한국학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반론도 성립된다. 국학을 거부할 것인가 계승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으로 삼아 노선이 갈라져 한국학 1 · 한국학 2 · 한국학 3 이라고 구분해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나타났다.

한국학 1 을 주도한 이병도는 실증적으로 타당한 사실만 인정하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학의 민족주의와 거리를 두었다. <<조선사대관>>이라고 하다가 <<국사대관>>으로 개칭한 주저에서, 이른 시기의 역사에 대한 국학 1 의 과장된 평가를 격하하고 냉철한 학문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자 했다. 한사군 설치가 분명한 사실이어서 시대구분의 기준이라고 보고, <한군현 설치 이후의 동방사회>에서 고조선을 부여와 함께 고찰했다. 식민지 시기에 대한 서술은 아주 소략하게 했다. 이병도와 함께 <<한국사>> 전 7 권을 집필한 김재원 · 이상백 · 이선근 또한 정치나 제도에 관한 사실 고찰을 임무로 삼았다. 이런 선례에 따라 자료와 사실에 충실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 현실문제의 개입이나 이념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학풍이 널리 정착하고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학 1 에 정면으로 맞서는 연구를 좌파에서 해서 한국학 2 라고 일컫기로 한다. 그쪽에서는 한국학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조선학이라고만 해왔지만 통괄 논의를 위해 공통의 용어가 필요하다. 한국학 2 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과학적인 학문을 한다고 하면서 국학 1 에 대해 한국학 1 에서보다 더 큰 거부감을 가지고 강경하게 비난했다.

선두에 나선 전석담은 <<조선사교정>>에서 백남운의 전례를 넘어서서 더욱 발전된 사관을 확립한다고 공언하고, 조선은 노예제사회를 거치지 않고 봉건사회가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식민지 시기 고찰에 큰 비중을 두고, 3 · 1 운동과 6 · 10 만세운동이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논란을 긴요한 관심사로 삼는 좌파의 연구는 남북이 분단되자 북쪽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다.

손진태는 한국학 1 과 한국학 2 의 노선 대립을 넘어서서 역사를 이해하는 통합논리를 신민족주의 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해 한국학 3 을 이룩하고자 했다. 국학을 한국학 2 에서는 비난하고 한국학 1 에서는 격하했으나, 한국학 3 에서는 계승했다. 비난이나 격하의 대상이 된 것은 국학 1 이고, 국학 2 는 타격을 받지 않았다. 손진태는 안재홍의 노선을 받아들여 국학 2 에서 설정한 목표를 한국학 3 에서 실현하는 과제를 맡았다. <<조선민족사개론>>에서 국가사에서 민족사로, 정치사에서 문화사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 상하문화의 통합이 민족사 발전의 과제라고 했다. 사회를 논하면서 계급 구성을 살피고 여성의 지위를 문제로 삼았다. 다른 여러 저작에서 역사학과 함께 민속학도 하면서 통합의 관점을 갖추려고 했다.

국문학자 조운제는 손진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정립한 민족사관에 입각해 문학사를 서술했다. <<국문학사>>에서 민족정신의 전개에 따라 문학사를 이해해, 민족정신이 분열되는 위기를 통합에 의해 극복한 과정을 밝히고 민족해방과 분단극복의 원리를 찾으려고 했다.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독자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내부적인 단결을 이룩하는 문학이 민족문학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고 했다. 조선왕조 건국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자 국문문학이 일어나고, 발전시대에 임진왜란을 겪고 국학정신이 양양되고, 반성시대에 실학이 발흥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나타낸 것이 민족사 발전의 커다란 성과임을 문학사가 잘 보여준다고 했다.

손진태와 조운제가 주도한 한국학 3은 이인영과 김성철이 동참하는 데 그친 소수자의 학문이었다. 네 사람이 모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자리 잡아 열세를 만회하는 것 같았으나,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자 불행이 닥쳤다. 손진태와 이인영은 북쪽으로 납치되고, 김성철은 별세했다. 조운제는 서울대학교를 떠나야 했다. 좌우 중간노선을 지향하는 한국학 3이 역사학이 남쪽에서 사라지고, 북쪽에서 등장할 수 없어 발전이 정지되었다. 전쟁을 겪고 남북분단이 더욱 굳어지면서 학문도 양극화되었다. 남쪽은 한국학 1이, 북쪽은 한국학 2가 지배하고 반론이 제기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북쪽에서는 과학원 및 사회과학원 산하의 여러 연구소를 상설기구로 창설하고, 남쪽에서 간홍기문, 이극로, 고정옥, 김석형, 도유호 등의 뛰어난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직 혼란을 겪고 있는 남쪽을 능가하는 업적을 보여주었다.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를 설치해 고전을 번역하고 정리해 출판하는 작업에 일찍부터 힘썼다. 언어 연구에 평가할 만한 성과가 있고, 사전 편찬에서도 앞서나갔다. <<조선철학사>>를 내놓고, 방대한 규모의 <<조선사>>를 완성한 것이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진행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드러내놓고 논란을 하다가 명백한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저를 집필해 감추어버린 내부에 차질과 진통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 학문 교본의 두 원칙 가운데 과학적 유물론에 의거한 연구는 힘써 진행하지 않은 채 정치적 당파성 평가에 경도되는 불균형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보다 확대되었다. 탁월한 영도자의 가르침이 가치 판단의 유일한 근거이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는 요구가 주체사상을 내세우자 더욱 확고해지면서, 학문의 다양성이나 유연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주체사상으로 민족 주체를 강조하다가 단군을 건국의 시조로 받드는 데 이르러, 비과학이라고 비난한 국학 1과 제휴하기에 이르렀다.

전란을 겪은 다음 오랫동안 남쪽은 혼란을 겪고 제도가 미비해 학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한국학 1이 반공인 국시와 합치되므로 다른 길로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제어장치가 작동했다. 근본이 되는 논란은 하지 않고, 기존의 학문을 다양하고, 풍부하고, 세련되게 하는 작업이 높이 평가되었다. 조직적인 연관은 가지지 않고 각기 일가를 이루어, 현상윤이 유학사, 김동화가 불교사, 홍이섭이 과학사, 김두종이 의학사, 최호진이 경제사, 김재원이 고고학, 김원룡이 미술사, 이해구가 음악사, 최상수가 민속학, 이두현이 연극사, 석주선이 복식학, 황혜성이 식생활사를 개척한 성과 같은 것들이 두드러진다. 국어학의 이승녕은 방법론 시험에서, 국문학의 김동옥은 자료 확대에서, 국사의 이기백은 논리 정비에서 연구 발전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국학 1을 떠나 한국학 3을 이어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나타났다. 김철준은 손진태의 전례에 따라 문화사를 이룩하고자 하면서 논의의 범위는 넓히지 않고 치밀하게 다듬었다. 이우성은 한국학 3을 거쳐 국학 2와 접맥되는 연구를 분야 구분을 넘어서서 하면서 實學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해서 후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동일은 한국문학사의 총체를 사회사·사상사와 함께 고찰하고, 동아시아문학·세계문학으로, 인문학문론·학문일반론으로 나아가는 작업을 氣學을 이어받아 하고자 한다.

학문 혁신을 위한 전통 계승

연구 분야를 구분하는 분과학문은 유럽 근대의 산물이었다. 그 전례를 받아들여 한국에서 정착시킨 제도는 극도의 분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제 분화가 지나치고 폐해가 심각해져서 반성이 요망된다. 분과학문들끼리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분과학문에서 통합학문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외국에서는 한국학을 개별학문으로 하기 전에 통합학문을 먼저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한국학 총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보이는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분과학문을 망라해 한국학 전반을 소개하는 작업을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에서 시작해 *Korean Studies Today* (1970) 및 그 국문판 <<한국학>>(1972)을 내놓았다. 총론은 없으며, 종교, 철학,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고고·미술, 고전음악, 연극, 민속, 역사학, 경제, 사회학, 과학 등을 각기 고찰한 내용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한국학입문>>(1983)에서 후속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역시 총론은 없으며, 역사 문화, 사상, 정치 법률, 경제 사회 기술, 언어 문학, 예술 등으로 구분한 각론을 갖추었다.

국내외의 학자들이 모여 학술회의를 하고 내놓은 보고서는 더 많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민족문화연구의 방향>>(1980)이 일찍 이루어진 예이다. 역사·국어·국악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발표를 하고, 한국학 총론을 갖추었다. 앞의 세 분야는 국내 학자와 재미동포 학자가 한 사람씩, 총론 <민족문화연구의 과제와 방향>은 조동일이 맡았다. 한국학 국제학술회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많이 열었다. 발표된 논문을 모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의 세계화>>(199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해방 50년, 세계 속의 한국학>>(1995) 같은 것들이 출간되었다.

한국학 사전을 만드는 것은 오랜 소망이었다. 몇 가지 양과 질 양면에서 미흡한 시도가 있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2)을 27 권의 방대한 규모로 이룩해 국내외 한국학을 위해 필수적인 참고서를 제공했다. 기존의 백과사전에 의거하지 않고 민족문화백과사전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모든 항목 집필자의 성명을 밝힌 것은 크게 평가할 일이지만 결함도 적지 않다. 조동일이 작성한 <민족문화비교표>가 서두에 있으나 사후의 합리화에 지나지 않아, 총론과 각론이 적절하게 맞물리지 않고 있다. 체계의 불균형이나 부실한 내용이 적지 않고 새로운 연구 성과를 추가해야 하므로 수정과 증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

밖에 알리는 것보다 자체 점검을 더욱 긴요한 과제로 삼아 한국학 전반을 점검하려고 이우성의 공편, <<한국학연구입문>>(1981)이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저작이며, 이우성·정창열, <한국학의 반성과 전망>에서 한국학에 대한 인식의 경과를 정리하고 학풍의 변화를 고찰했다. 한국학의 분야로 국어학, 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을 들었다. 본문 서술에서는 미술, 음악, 과학기술, 종교, 연극과 영화 등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시도가 거듭되고 이론 성과를 축적하면 한국학이 분과학문을 넘어서서 통합학문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분과학문 전공자들이 모여 공동 작업을 하는 데 그쳐서는 공유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 통합 작업을 공동으로 담당하거나 각자 수행하면서 토론하는 방식을 택하지 못해 진전이 더디다. 난관을 타개하려면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학문은 모름지기 분과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이 근대의 관념인 줄 알고 타파해야 해결책이 생긴다.

통합학문의 전통과 만나 혁신을 위한 힘을 얻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전통학문은 분과 이전의 통합을 장기로 삼아 학문의 여러 영역을 총괄적으로 고찰하는 업적을 거듭 이룩했다. 한 사람이 학문의 모든 영역을 다룬 거질의 저작 이수광의 <<芝峰類說>>, 이익의 <<星湖僿說>>,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 같은 것들이 좋은 본보기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60 권이나 되는 분량이며, 19 세기 초까지 알려진 지식 가운데 저자가 특히 긴요하다고 여긴 것을 골라 자기 관점에서 서술하고 논평한 ‘辨證說’로 구성되었다.

위에서 든 여러 저작은 중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를 함께 다루면서, 동아시아문명의 양상과 관련시켜 한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탐구를 여러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했다. 모든 지식을 아우르는 통합학문의 시각과 함께 동아시아문명과 한국문화를 연결시켜 고찰하는 방법 또한 재평가하고 계승할 만한 의의를 지닌다. 한국학과 구분되지 않던 동아시아학을 미분화되어 낙후한 유산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국학이 그 자체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와 교류하고,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지 열거 서술의 방식으로 각론을 늘어놓기만 했으며 총론이라도 할 것은 없다. 분과학문 이전 단계의 통합학문을 많은 사례를 다양하게 들어 보여주지만 하고 이론적인 논의는 하지는 않아 통합의 원리가 무엇인지 물으면 응답하지 못한다. 통합학문의 원리를 밝혀 학문 일반론을 전개하는 작업은 별도로 이루어져 전통 계승의 폭을 넓혀야 만날 수 있다. 한국학이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학문으로 성장해 인류를 행복하게 하려면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학문 일반론을 바람직하게 혁신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제 통합학문 원론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전통 계승에 의한 혁신의 가장 소중한 작업으로 등장한다. 먼저 14 세기의 정도전을 만나자. 정도전은 “心身人物”을 “各盡其性”하고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 학문을 유학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心은 마음이고, 身은 신체활동이고, 人은 인간관계이고, 物은 사물이거나 물질이다. 이 모든 영역에 있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통괄해서 파악하는 학문이 유학이라고 했다.

정도전이 “各盡其性”이라고 한 ‘性’은 ‘天性’이면서 ‘物性’이다. 천성은 같으면서 물성은 다르다고 하면 타당한 논의가 전개된다. 그런데 천성은 理이고 물성은 氣라고 구분해, 이는 존귀하고 기는 미천하다는 理氣이원론이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차질이 생겼다. 理通이라는 이에 의한 통합은 존귀하고 氣局이라는 기에 의한 구분은 미천해 별개를 이룬다고 하면서, 앞의 것을 위한 도덕학문만 대단하게 여기고 뒤의 것에 관한 사물학문은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지속되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 논의를 바르게 한 것이 다음 단계의 변화이다. 18 세기 에 흥대용이 한 작업에서 변화의 이유와 양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흥대용은 말했다. 理와 氣는 둘이 아니므로 귀천, 통국, 존귀 등의 차등은 부당하다. 이는 기의 원리일 따름이므로 기가 귀하면 이도 귀하고, 기가 통합되면 이도 통합된다. 이런 명제를 통합해 이기이원론에 대한 氣일원론의 반론을 이룩했다. 기일원론을 理氣뿐만 아니라 性情, 詩歌, 貴賤, 華夷, 天地 등에 일제히 적용하고 개별 영역에 관한 실제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性은 마음의 바탕이고 情은 그 작용이다. 이 둘은 선악이 아닌 體用의 관계일 따름이라고 했다. 詩는 한시이고 歌는 한국어 노래이다. 이 둘은 대등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貴니 賤이니 하는 것은 사회적 위치이다. 이 둘은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고 했다.

華夷는 문명권의 중심과 주변이다. 이 둘은 상대적이어서 누구나 자기를 중심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天地는 하늘과 땅이다. 이 둘은 높고 낮으며 둥글고 모난 차이가 없고 서로 맞물려 운동한다고 했다.

19 세기의 최한기는 통합학문론 원론에 관한 일련의 저작 <<氣測體義>>·<<人政>>·<<氣學>>을 이룩했다. 기일원론을 氣學이라고 하고, 학문론의 총론을 명확하게 하고 각론을 풍부하게 갖추는 데 활용했다. ‘運化之氣’라고 한 운동하고 변화하는 氣가 존재의 양상이고 인식의 근거가 되는 줄 알고 학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마음속의 운화지기와 천지만물의 운화지기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므로 몇 단계의 교호작용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인식을 확대해야 올바른 학문을 한다고 했다.

운화지기를 마음속에서 다듬어 정립한 氣學을 천지만물에 널리 적용해 政學, 經學, 典禮學, 刑律學, 曆數學, 器用學 등으로 일컬은 다양한 학문을 하는 방법을 각기 고찰했다. 그래서 상대주의나 실용주의로 넘어간 것은 아니다. “一鄉一國”을 위한 학문은 쓰이기도 하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天下萬世公共”이 감복하는 학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보편주의의 학문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한국학

한국학은 중국학이나 일본학보다 현저하게 열세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사태가 지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옹호를 한국학의 임무로 삼아 맞대응할 것은 아니다. 국가학의 경쟁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학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책이다. 동아시아문명의 공통된 유산을 함께 계승해 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세계학문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여러 논저에서 역설했다. 그 요지를 <<동아시아문명론>>(지식산업사, 2010)에 정리해놓자, 일본어 번역이 바로 출간되고 중국어 번역도 완료되었다.

지금 인류 전체가 근대 동안 벌어진 과학과 기술, 경제나 정치의 경쟁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을 넘어서서 인류는 하나이고 공통된 이상을 지니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일깨워주려면 진정으로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학문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한국학의 사명이다. 한국학은 한국학을 넘어서야 하고, 한국학이 아니어야 한다. 진정으로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학문을 하자는 당위론이나 떠는 것은 무책임하다. 말아 나서야 한다고 다짐하고 시도해온 작업을 예증을 들어 보이겠다.

<<철학사와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지식산업사, 2000)에서 철학사와 문학사가 합쳐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한 과정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찰했다. 철학과 문학이 가장 떨어진 오늘날의 위기를 둘이 다시 하나가 되어 극복해야 한다고 하고, 이성에서 통찰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지식산업사, 2001)에서는 동아시아,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아랍세계, 아프리카 등지의 작품을 널리 포괄해 소설의 사회사 일반론을 세계 최초로 이룩했다. 소설의 흥망성쇠를 들어 선진이 후진이 되고 후진이 선진이 되는 원리를 입증했다.

이런 작업은 氣學의 전통에서 가져온 生克論을 기본이론으로 삼는다. 16 세기의 철학자 서경덕이 “하나는 둘을 생하지 않을 수 없고, 둘은 능히 스스로 생극하니, 생하면 극하고, 극하면 생한다”(一不得不生二 二自能生克 生則克 克則生, <原理氣>)고 한 것을 원천으로 하고, 홍대용과

최한기의 학문론에서 발전을 보인 생극론은 相生이 相克이고 상극이 상생이라는 이치를 학문의 모든 영역에 제공해 오늘날의 창조학이 일제히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그 가능성의 일부를 구체화해 학문 혁신의 작업을 진행했다.

상생이 상극이고 상극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선진이 후진이고 후진이 선진이라고 하는 것이 생극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본명제이다. 이 두 명제로 생극론은 변증법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선진과 후진의 교체는 희망이 아니고, 역사의 실상에 근거를 두고 파악된 사실이다.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할 때 후진이 선진이 되고, 선진이 후진이 되는 변화를 겪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 판단이다. 역사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언설에 현혹되지 말자. 선수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에 물러나는 선수가 으레 하는 말이다. 역사의 전개는 끝나지 않는다. 선진이 다시 후진이 되는 변화가 이어진다.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은 근대의 후진이던 곳에서 선도해 근대의 기준에서는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극론 계승은 시작했을 따름이다. 문학사에 적용해 검증한 중심 작업에도 많은 미비점이 있다. 문학사를 넘어선 영역에 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많은 동참자가 여러 측면에서 더욱 진전된 작업을 하기 바란다. 생극론은 조상 전래의 공유재산이다. 지적 소유권을 지나치게 주장해 학문의 성과를 독점하는 근대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동의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마땅하다.

Tradition and Innovation in Korean Studies

Cho Dong-il

Introduction

Korean Studies has a long tradition and has seen repeated innovation. Today, a decade or so after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I would like to look back on the tradition of Korean Studies and examine the process and direction of innovation. We will take as the goal of innovati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Korea into a Korean Studies of the world, and attempt to arrive at a way to make this a reality.

Tradition and innova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they are complementary. Innovation may be a rejection of tradition, but it must be based on tradition. Among the many threads of tradition, we must reject tradition that once boasted authority but then faded, and we must find alternatives within tradition that has not been damaged but is still fresh, realizing its potential value, in order to achieve innovation. For Korean Studies in Korea to develop into a Korean Studies of the world, there must be new results in innovation based on tradition.

A Korean Studies of the world is a field of study that (a) is open to the world, (b) engages and interacts with the world, and (c) contributes to the world. The number of nations and scholars engaged in Korean Studies is increasing, leading to (a), but there is still the need for an increase in participation and diversification in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b) is realized th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n Studies and national studies or other academic fields in other nation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ere is desirable. In terms of (c), Korean Studies must contribute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concerns of humanity or the crisis of world history, so we must use our fine traditions as a steppingstone to the creation of a theory that will revolutionize academics throughout the world.

Of these three, everyone is interested in (a), so there is no need to belabor this point here. Little has been achieved regarding the task of achieving (b) and moving on to (c), and this task does not get nearly enough recognition, so we must make an effort to discuss it. I have already made a number of attempts at this, including *The Path of Korean Studies* (Jisiksaneopsa, 1993), *The Mission of the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7), *Korean Stud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10 volumes; Keimyung University Press, 2005–2009), and *A Theory of Learning* (Jisiksaneopsa, 2012), but they are long-winded and yet still insufficient. I will distill the essence of these attempts here, renewing the discussion with a clearer awareness of the issues.

The origins of and changes in national studies

The Korean Studies of today has its origins in national studies (gukhak; 國學). The Korean term originally referred to educational institutions founded by the state ("guk" meaning "nation" and "hak" meaning "school"); the concept of "national studies" actually came from "national history" (guksa; 國史). As early as the Silla period, in 545, it was said: "National history records the virtues and evils of the ruler and his vassals, presenting their praise and criticism to all generations, so if we do not compile it, what will future generations read?"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6th year of King Jinheung") Only by narrating history and passing it down to future generations is it possible to be a civilized nation.

It was customary to refer to Korea as the "eastern nation," just as it was customary to refer to China as the "western nation." Sometimes the name of the nation was simply "the East," and the term "East of the (Yellow) Sea" was also used. *Ruling the Eastern Nation, The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the Eastern Nation, The Anthology of Eastern Writings, Discourse on the Poetry of the Eastern People, Unraveling the History of the Nation East of the Sea, Songs From East of the Sea* are some examples. Studies on the nation, the eastern nation, or east of the sea are national studies in Korea. These national studies have a long history and have achieved much. Many outstanding books were written during the 15th century as part of state projects, and during the 18th century by private scholars. We must continually strive to carry on this tradition and put it to good use.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1897-1910), the term "native studies" was used, and it was said that there had to be an even focus on both "native studies" and "foreign studies." There was a major change in the perception of East Asian cultural heritage, which was now considered "foreign studies." With the loss of the n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nation" was replaced by the regional name Joseon and the term "Joseon studies" was used. "Joseon studies" was referred to as "national studie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and the term may be used retroactively.

During the period when it was called Joseon studies, national studies grew along with the national culture movement, and its goal was to escape from the universalism of East Asian culture and find the spiritual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nationalism. It attempted to find new uses for the long-established learning of the medieval era in order to achieve internally the type of academics demanded by the modern era. Choe Namseon, Sin Chaeho, Mun Ilpyeong, An Hwak, An Jaehong, and other pioneers all did their best despite the adverse conditions under colonial rule.

Choe Namseon worked from within the nation, while Sin Chaeho worked from exile, taking the opposing attitudes of adaptation and resistance in their studies, but their basic ideas shared a commonality. Choe Namseon said that the unique spirit of the nation had to inherit the heritage that was achieved during the time of Dangun with the establishment of a grand civilization that revered light, known as "Bak" (晝; 不咸). Sin Chaeho said that the greatest

misfortune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was the acceptance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and the subsequent loss of the progressive spirit of earlier times, and he advocated a new adoption of the unique Korean sense of independence (nanggasasang) as the spirit of the struggle for national liberation.

Mun Ilpyeong carried out a variety of research, presenting his general theory in *The Significance of Joseon Studies*. He said that Joseon studies "in the broad sense includes everything that may be considered an academic subject of the study of Joseon, including religion, philosophy, art, folklore, and legends, but in the narrow sense it should be used to designate things like pure Joseon literature, as well as the study of the language and history of Joseon." He also said that, "from an impartial perspective, it is proper to interpret Joseon studies in the narrow sense rather than the broad sense," adding that the narrow sense must be chosen "particularly when Joseon studies conflicts with Confucian and Buddhist studies." He said that the study of national culture as distinguished from East Asian culture was national studies.

Let us call the national studies of Choe Namseon, Sin Chaeho, and Mun Ilpyeong "National Studies 1." There is also a "National Studies 2," which pioneered a different path. An Hwak said that we should not lamen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ulture and claim that it damaged national culture. Opposing the tendency to defend native culture from an exclusivist point of view, he led the way in establishing the view that East Asian culture could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and was thus valuable. He wrote *The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as a means of evaluating the idea that Confucianism and Buddhism promote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after they were adopted and made national culture that much richer. He warned against merely reproaching past generations for having gotten things wrong, thus falling into nihilism, saying that it was also critical that efforts be made to explore our own unique strong points. In *The History of Joseon Culture*, he argued that strife between political factions, which had been denounced as the root cause of the fall of the nation, had a positive significance as a type of contest between differing policies.

In his "The Problem of Joseon," An Jaehong made clear the goal of National Studies 2. He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fined self in modern times ... a new third self that is both of the world and of Joseon, as our culture and our thought are both of Joseon and of the world." He urged studies that would "begin from the noble and solemn needs of reality to establish in the future a radically new society." To put this in simpler terms, he is saying that we must conduct studies that are both Korean and global, and both global and Korea. He is saying that we must remedy the mistake of dividing things Korean and things global, and that we must establish a third line that brings the two together, taking it as a guideline for spiritual awakening and the renovation of society.

The conversion to Korean Studies and the division of philosophies

The Japanese colonial rulers attempted to stop the national studies of Koreans from raising their national consciousness and inspiring a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They dominated the field of Joseon studies, attempting to prevent a situation that would threaten colonial rule. They put forth the assertion that researchers should not be carried away by national feelings, spouting hollow words, but instead engage in positivistic research that dealt with facts themselves. Materials that were suspicious or subject to controversy were excluded, leaving only the bare minimum to study, and scholars took as their actual task the exposing and examining of the backward and weak aspects of Joseon. They argue that Joseon had had a shameful history marked by stagnancy and heteronomy, so not only was independence an impossibility, it was only right that it should continue to be ruled by Japan. This approach clearly showed the character of regional studies under cultural imperialism.

Japanese scholars founded the "Green Hill Society" in 1930 and published the *Green Hill Journal* in an endeavor to focus their efforts on colonial regional studies. The faculty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took the lead, producing a large amount of research that was rather elaborate in its own way. The study of history, which purported to be an example in its criticism of historical materials, acted as a mouthpiece for colonial rule and boasted exceptional authority, but it did little more than help foster unreasonable prejudices. In other fields, there were the occasional efforts that showed some progress in examining materials and acted as stimuli. The results were most remarkable when they engaged in politically-neutral discussions of fields that had not been explored up to that point. Ogura Shinpei's research on hyangga and Akiba Takashi's research on shamanism are examples worth remembering.

Korean scholars founded the "Jindan Society" and engaged in their own research activities. Both "Green Hill" and "Jindan" were other names for Joseon. The two societies are similar in that they used these bynames rather than the name of the nation. In the founding issues of the *Jindan Society Bulletin*, the society stated that it would "carry out the duty and mission of developing and advancing Joseon culture," clearly distinguishing it from the research of the Japanese, but in terms of their approach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any difference. The society was led by scholars like Yi Byeongdo, Kim Sanggi, Yi Sangbaek, and Yi Seongeun, who had returned from studying in Japan, along with graduates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and these scholars took their cues from the positivistic research they had studied in both places.

The leaders of the Jindan Society were scholars of history, and they set an example by establishing national history as an independent field of study. Then national literature and national linguistics also established their own territory and methodology. National literature and national linguistics led the way in research with such elaborate works as Jo Yunje's *A General History of Joseon Poetry*, Yang Judong's *A Study of Old Songs*, and Choe Hyeonbae's

Our Grammar. Baek Namun's *A History of Joseon Society and Economy*, which was classified as an economic history, outside of the mainstream of national history, is also a significant achievement. Song Seokha and Go Yuseop pioneered important research in folklore and art history, respectively.

We will call this new field of study, distinguished from the national studies we examined above by the two characteristics of its use of positivistic methodology and its division into different academic fields, "Korean Studies." National studies is the final result of the learning of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medieval era to the modern era, achieved internally, while Korean Studies is a modern field of study that has emerged through external influence. This differentiation in terminology makes it clear that national studies is the field of Koreans alone, while Korean Studies is a field of study in which Koreans and scholars from many other nations work together.

The move from national studies to Korean Studies cannot necessarily be called progress. The counterargument that national studies has a precious tradition and so must act as a guideline by which to correct that which is wrong with Korean Studies is also valid.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ject national studies or to carry on its tradition has become an issue, and a divergence in approaches has made it necessary to divide Korean Studies into Korean Studies 1, Korean Studies 2, and Korean Studies 3.

Yi Byeongdo, a leader of Korean Studies 1, claimed that only those facts recognized as being positivistically valid should be studied, distancing national studies from nationalism. In his primary work, which he first titled *A General Survey of Joseon History* and later retitled *A General Survey of National History*, he undermined the exaggerated judgments of National Studies 1 regarding early history and sought to lead the way toward more dispassionate studies.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 Chinese Commandaries was a clear fact, so he took this as a standard by which to divide eras and examined both Old Joseon and Buyeo in a chapter entitled "Eastern societ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ese commanderies." His description of the colonial period was quite cursory. Along with Yi Byeongdo, the three authors of the seven volumes of *A History of Korea*, Kim Jaewon, Yi Sangbaek, and Yi Seongeun, took as their duty the examination of facts regarding politics or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se precedents, the academic trend of performing positivistic research that was faithful to materials and facts and avoided the intrusion of realistic problems or controversy over ideology was widely established and exercised a dominating influence.

Research that confronted Korean Studies 1 head on was carried out by the political left, and will be called Korean Studies 2. These scholars did not use the term "Korean Studies," simply calling their work "Joseon studies," but a common term is necessary for a generalized discussion. Korean Studies 2 claimed to carry out scientific research that was based on Marxism, and it strongly criticized National Studies 1 with even more hostility than did Korean Studies 1.

Jeon Seokdam, a leader of Korean Studies 2, wrote *A Corrected History of Joseon* and declared that he had surpassed the precedent set by Baek Namun and established a more advanced view of history, and he noted that Joseon was unique in that it did not have a period of slavery and that feudal society began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He devoted a lot of space to his examination of the colonial period, and he said that the March 1st and June 10th movements failed because they did not develop into socialist movements. The research of the left, which took such controversies as essential matters of interest, became established in North Korea after the division of the nation, and there expanded into a wide variety of fields.

Son Jintae introduced a unified way of understanding history that went beyond the clash of Korean Studies 1 and Korean Studies 2, what he called a "new nationalistic view of history," and attempted to establish Korean Studies 3. National studies may have been criticized by Korean Studies 2 and undermined by Korean Studies 1, but it was inherited by Korean Studies 3. It was National Studies 1 that was the target of criticism or undermining, while National Studies 2 remained unscathed. Son Jintae adopted the line followed by An Jaehong and undertook the task of realizing the goals set forth by National Studies 2 through Korean Studies 3. In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Nation of Joseon*, he said that history had to move from histories of the state to histories of the nation (that is, its people) and from political history to cultural history, and he proclaimed the unification of upper- and lower-class culture to be the task of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istory. In his discussion of society he examined the class structure and took issue with the status of women. In his many other works, he delved into folklore as well as history, attempting to gain a unified perspective.

The Korean literature scholar Jo Yunje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Son Jintae, and he narrated the history of literature based on the view of national history that they had established. Jo Yunje's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understands the history of literature according to developments in the national spirit, revealing the process by which the crisis of division in the national spirit was overcome through unity and seeking principles for national liberation and overcoming division. He said that a literature that expressed the inclination to break free from dependency on China and achieved internal solidarity possessed an important value as a national literature. Shortly after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the Hangeul writing system was created, leading to the emergence of a national language literature; during the developmental years of the dynasty, the spirit of national studies was elevated as a result of the experiences of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and during the period of self-reflection that followed, Practical Learning rose to prominence and expressed a new zeitgeist. Jo Yunje said that literary history showed that this development was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e development of the history of the nation.

Korean Studies 3, led by Son Jintae and Jo Yunje, saw the participation of Yi Inyeong and Kim Seongchil, but ended up as a minority field of study. These four scholars were all professo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seemed that they would be able to turn the tide, but misfortune struck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Son Jintae and Yi Inyeong were kidnapped and brought to the north, while Kim Seongchil died. Jo Yunje was forced to leav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istorical studies of Korean Studies 3, which pursued a central line between right and left, disappeared in the south and could not emerge in the north, so its development was halted. As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grew more entrenched after the war, scholarship grew polarized as well. Korean Studies 1 dominated the south while Korean Studies 2 dominated the north, and for a very long time no refutation of either was possible.

In the north,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affiliated with the Academy of Science and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were established as permanent bodies, and an environment was created where exceptional scholars who had come from the south, including Hong Gimun, Yi Geukro, Go Jeongok, Kim Seokhyeong, and Do Yuho, could devote themselves to their studies, achieving results that surpassed those of a south still embroiled in chaos.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established the Classics Research Institute, which devoted itself early on to the translation, organization, and publishing of classical literature. There have been remarkable achievements in linguistic research, and the north was also ahead in terms of the compilation of dictionaries. The publishing of *A History of Joseon Philosophy* and the completion of the massive *History of Joseon* have groundbreaking significance.

Progress, however, was not smooth. There was the hidden internal problem of research that began with a certain measure of open controversy but then ended up simply explaining obvious facts. The imbalance that resulted when scholars ignored the first principle of Marxist scholarship (that research be conducted based on scientific materialism) and devoted their energies to the second principle (judging political partisanship) was more pronounced here than in other socialist nations. The demand that these teachings be accepted without question, since the teachings of the superior leader were the only guide for judging value, became even more unwaveri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Juche idea, so diversity and flexibility could no longer be expected in academia. When the Juche idea moved from strengthening the national identity to revering Dangun as the founder of the nation, a truce was reached with National Studies 1, which had formerly been denounced as unscientific.

For a long time after the war, the south remained in chaos and institutions were inadequate, making it difficult to conduct scholarship, and a control mechanism was in place that prevented development along any path other than Korean Studies 1, which was said to be in agreement with the national policy of anti-communism. There was no controversy over fundamentals, and projects which made existing research more diverse, richer, and more refined were highly regarded. Scholars conducted independent research with no systematic

ties between them, and notable achievements were made through pioneering work in Confucian history by Hyeon Sangyun, in Buddhist history by Kim Donghwa, in science history by Hong Iseop, in medical history by Kim Dujong, in economic history by Choe Hojin, in archaeology by Kim Jaewon, in art history by Kim Wonryong, in music history by Yi Hyegu, in folklore by Choe Sangsu, in drama history by Yi Duhyeon, in the study of attire by Seok Juseon, and in dietary studies by Hwang Hyeseong. Examples of advances in research could be seen in the methodological experiments of Yi Sungnyeong in Korean linguistics, the expansion of materials by Kim Donguk in Korean literature, and the organization of theories by Yi Gibaek in Korean history.

At the same time, though, there was also a careful move to part ways with Korean Studies 1 and receive the mantle of Korean Studies 3. Kim Cheoljun followed the precedent set by Son Jintae and attempted to achieve a history of culture, but he did not broaden the scope of the discussion, instead opting for more meticulous and detailed research. Yi Useong went beyond Korean Studies 3 to engage in research in the tradition of National Studies 2 that crossed disciplinary boundarie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younger generation with his calls to carry on the tradition of Practical Learning. Cho Dong-il has examined the entirety of Korean literary history along with the history of society and thought, and he aims to expand his research into East Asian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and into a theory of the humanities and a general theory of learning, in the tradition of the study of the material force ("gihak").

Inheriting tradition to achieve innovation in scholarship

Departmental studies, which divide up fields of research, was a product of modern Europe. The system established in Korea on this precedent is characterized by extreme specialization. This specialization has now gone so far as to become a severe detriment, and reflection on the issue is required. We must make an effort to achieve dialogue and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fields of departmental studies, and we must find a way to move from departmental studies to integrated studies. We must recognize this demand from abroad to approach Korean Studies holistically rather than focus on individual fields of study within Korean Studies, and we must be able to provide a general theory of Korean Studi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interest in Korea generated in other countrie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East Asian Culture Research Center undertook the task of introducing Korean Studies in all fields of departmental learning, beginning with the English-language journal *Korean Studies Today* (1970) and following this with the Korean-language version (1972). With no general theory, the journal separately examined religion, philosophy, the Korean language, classical literature, modern literature, archaeology and art, classical music, drama, folklore, history, economics, sociology, and science.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took what could be called a follow-up with *An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1983). Once again, there was no general theory, and the book was divided into sections such as history and culture; thought; politics and law; economics, society, and technology; language and literature; and art.

Far more numerous, though, are the reports produced by academic conferences attended by both Korean and foreign scholars. *The Direction of Korean Culture Research* (1980), published by Yeungnam University's Institute of Korean Culture, is one early example. It was divided into history, Korean language, and Korean music, and it had a general theory discussion of Korean Studies. The three individual sections were written by one Korean scholar and one Korean-American scholar each, and the general theory discussion, "The Tasks and Direction of Korean Culture Research," was written by Cho Dong-il. There were also many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Korean Studies held in various locations. The papers presented at these conferences were collected and published as books such a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1991)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Fifty Years After Liberation: Korean Studies in the World* (1995) by Inha University's Center for Korean Studies.

There had long been a desire to write a dictionary of Korean Studies. There were a few attempts that proved inadequate in quality and quantity, but the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ublished the 27-volum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an essential reference for Korean Studies both in Korea and abroa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did not rely on existing encyclopedias but was created independently, and the writers' names were printed after each entry, but it is not without its flaws. The introduction contains the "Comparative Table of National Culture" by Cho Dong-il, but it is little more than rationalization after the fact and fails to properly reconcile general theory and individual items. There are not a few examples of imbalances in the system and lack of content, and new results achieved in research need to be added, so the work requires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Yi Useong and others felt that self-examination was more important than external propagation, and so they undertook the task of examining the whole of Korean Studies, publishing *An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Research* (1981). It is a fairly systematic work, and Yi Useong and Jeong Changyeol traced the evolution of the perception of Korean Studies and examined changes in academic trends in "Reflection on and Prospects for Korean Studies." As areas of Korean Studies, they listed the Korean language, archaeology, history, folklore, cultural anthropology, philosophy, political science, economics, sociology, and law. In the main body of the text they also included areas such as art, music, science and technology, religion, drama, and film.

It is unlikely that such repeated attempts will accumulate to the point that Korean Studies will be able to transcend departmental studies and become integrated studies. Merely gathering together specialists in departmental studies and having them work together will not produce a shared result. Progress is slow because scholars have been unable to either jointly

undertake integrated projects or work on them individually while discussing the projects. In order to break through this impasse we need a fundamental rethinking of our approach. We must recognize that the idea that learning must necessarily be departmentalized is a modern concept if we are to do away with it and find a solution. The first thing we must do is rediscover the tradition of integrated studies and build on that to achieve innovation.

Traditional learning took as its strength integration rather than departmentalization, producing results that provided an overview of various fields of study. Good examples of vast works that dealt with all fields of study yet were produced by single authors are Yi Sugwang's *Categorical Discussions of Yi Sugwang*, Yi Ik's *Miscellaneous Discussions of Yi Ik*, and Yi Gyugyeong's *Discursive Manuscripts of Yi Gyugyeong*. *Discursive Manuscripts of Yi Gyugyeong* is some sixty volumes in length and consists of all knowledge up until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that the author deemed essential, narrated from his point of view and commented in "dialectic" fashion.

The above works dealt with China and Korea together, relating them to aspects of East Asian civilization to offer multifaceted investigations of diverse areas of Korean culture. Along with the viewpoint of integrated studies that brought all knowledge together, the method of examining Korean culture in relation to East Asian civilization is significant enough to be reevaluated and adopted today. We should not think of an East Asian Studies indistinct from Korean Studies as some undifferentiated, backward heritage, but rather take it as a foothold for new progress; only then can Korean Studies avoid being limited to only itself and move toward both interacting and contributing to the rest of the world.

Yet all of these efforts merely listed individual fields of study without any general theory. They simply provided a variety of examples of integrated studies at the stage before departmental studies, engaging in no theoretical discussion, so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integration. We must uncover the principles of integrated studies, separately putting forth a general theory of learning and broadening our application of tradition. If Korean Studies is to grow into a field that will contribute to the world and bring happiness to humanity, we must go beyond the scope of Korea or even East Asia and reach a place of revolution in a general theory of world learning.

Now, inheriting the heritage of the principles of integrated studie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task in the process of innovation through tradition. Let us first look at Jeong Dojeon, from the 14th century. Jeong Dojeon said that in Confucianism one could achieve learning where the mind and the body, humanity and the material are always on the same wavelength even as they "exhaustively realize their own natures." The field of study that brought together and properly understood the characteristics of mind, body, humanity, and the material was Confucianism.

What Jeong Dojeon was referring to when he wrote "their own natures" were the "nature of heaven" and the "nature of the material." If we say that everyone possesses the same

nature of heaven but different natures of the material, we can establish a plausible argument. But problems arose when the nature of heaven was associated with "principle" and the nature of the material was associated with "material force," leading to the philosophy of the dualism of principle and material force, which said that principle was noble and material force was base. It was further argued that unification through principle was noble and division through material force was base, and this led to a long period when the ethics concerned with the former were considered great and the physical study of the latter was considered small.

The next change in the development of this philosophy came with the emergence of counterarguments to this idea. We can clearly see the reasons for and aspects of this change in the task undertaken by Hong Daeyong in the 18th century. His argument is as follows. Principle and material force are not two but one, so the hierarchical arrangement of noble and base, unification and division, and high and low is unreasonable. Principle is simply the principle behind material force, so if material force is valuable than so is principle, and if material force can be unified than so can principle. He brought together these theses to counter the theory of the dualism of principle and material force with the theory of the monism of material force. This monist theory was applicable not only to principle and material force, but also to nature and emotions, poetry and song, noble and base, civilized and uncivilized, and heaven and earth, and it was used widely in actual research on these separate fields.

The "nature" mentioned above in "nature and emotions" refers to the foundation of the heart and mind, while "emotions" are the action of the heart and mind. Hong Daeyong asserted that these two were not in a relationship of good and evil, but simply of a thing and its functions. "Poetry" refers to poetry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while "song" refers to Korean-language songs. Hong Daeyong said that these had equal significance. "Noble" and "base" are social positions. He said that these two must be divided not by status but by ability. "Civilized" and "uncivilized" referred to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of the civilization sphere. He claimed that these two were relative, and anyone could consider themselves the center. And he said of heaven and earth that they were not different in that one was high and one was low, or that one was round and one was square, but that they moved in harmony with each other.

In the 19th century, Choe Hangi wrote a series of work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a theory of integrated studies: *Comprehending the Significance of the Epistemology of the Material Force*, *Human Governance*, and *The Study of Material Force*. He referred to the monist theory of material force as "the study of material force," and he used it to clarify his general theory of learning and to give his study of individual fields more depth. He argued that scholarship needed to be undertaken with the knowledge that what he called "the moving and changing material force" was an aspect of existence and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moving and changing material force within the human heart and mind and the moving and changing material force in all of creation were basically the same, so it was necessary to prove its validity through several stages of interaction and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in order to achieve proper scholarship.

He applied to all creation the "study of the material force" that he had established through the cultivation of the moving and changing material force in his own mind, examining diverse methodologies for studying such fields of learning as politics, economics, state ceremony, law and punishment, astronomy and meteorology, and tool engineering. This does not mean that he went beyond relativism or pragmatism. It may or may not be used for the study of "one village and one nation," so it was proper to engage in study that would earn the admiration of "all people under heaven for ten thousand generations." He is saying that we must accept this as a lesson that we must go beyond nationalism to engage in universalist scholarship.

Korean Studies that contributes to the world

Korean Studies lags far behind Chinese Studies or Japanese Studies. There are constant examples of Korean history being reduced in importance or distorted by China and Japan. That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respond to this, making self-defense the duty of Korean Studies. The proper answer is to engage in universal studies that transcend the competition of national studies. I have argued in several books that we need to inherit together the common heritage of East Asian civilization, finding mutually beneficial ways to work together to achieve innovation in world scholarship. After I boiled down this argument in *A Theory of East Asian Civilization* (Jisiksaneopsa, 2010), a Japanese translation was soon published and a Chinese translation was completed as well.

The entirety of humanity is now experiencing serious conflicts because of the competition in science, technology, economy, and politics that occurred throughout the modern era. If we are to awaken people to the fact that humanity must transcend conflict to live together with a single, commonly-shared ideal, we must see the emergence of truly universal and truly global scholarship. Working toward this goal is the calling of a Korean Studies that contributes to the world. Korean Studies must transcend Korean Studies, and it must not be Korean Studies. Yet to simply proclaim that we must engage in truly universal and global scholarship would be irresponsible. I will illustrate how I have attempted to achieve this goal in my own work.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and the History of Literature: Two or One?* (Jisiksaneopsa, 2000), I examined on a global scale the process by which the history of philosophy and the history of literature at times united and at times divided. I argued that the crisis of today, when philosophy and literature are at their farthest apart, can only be overcome if the two

become one again, and that we need to go beyond reason and move toward insight. In *A Comparative Study of the Social Histories of the Novel* (Jisiksaneopsa, 2001), I achieved the world's first general theory of the sociology of novels, a theory that covered works from such diverse regions as East Asia, Europe, India, Southeast Asia, the Arab world, and Africa. Through the rise and fall of the novel, I proved the principle that advanced becomes backward and backward becomes advanced.

All of this is based on the basic theory of becoming and overcoming, which comes from the tradition of the study of material force. Taking as its source the words of the 16th century philosopher Seo Gyeondeok, "One cannot but become two, and two can easily become and overcome, so becoming is overcoming and overcoming is becoming," the theory of becoming and overcoming, which saw developments in the theories of learning of Hong Daeyong and Choe Hangi, offers to all fields of learning the logic that mutual becoming is mutual overcoming and vice versa, allowing for the rise of creative studies today. I gave concrete form to part of this possibility, making progress in achieving innovation in scholarship.

Along with the idea that becoming is overcoming and overcoming is becoming, the idea that advanced is backward and backward is advanced is a basic proposition that makes up the theory of becoming and overcoming. Through these two propositions, the theory of becoming and overcoming offers a counterargument to dialectics. The switching of advanced and backward is not a hope, but a fact based on the reality of history. During the transitions from the ancient era to the medieval era, and from the medieval era to the modern era, backward did become advanced and advanced did become backward. It is only proper to assume that the same thing can happen again. Let us not be blinded by the claims that history has come to an end. This is what all players say when it is time for them to leave the pitch and time for their substitutes to replace them. The development of history does not end. The change by which advanced become backward again continues. It is only natural that the transition into the next era will be pioneered in the places that were considered backward in the modern era, and that it will happen by means whose value is not recognized by the standards of the modern era.

I have only just begun the process of carrying on the tradition of the theory of becoming and overcoming. Even my central project of applying this theory to and proving it through the history of literature has many imperfections. I have only been able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discussion in areas beyond literary history. I hope that many of my fellow scholars will achieve more progress in a variety of aspects. The theory of becoming and overcoming is a common asset handed down to us by our ancestors. We must rid ourselves of the modern practice of excessively insis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us monopolizing our scholarly achievements, and we must work toward building up commonly-held achievements.